

**고전번역의 새 이정표 세워  
지나친 직역은 '옥에 티'**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은정회 외 역주  
일지사/A5신/640면/25,000원

번역은 원전과 벌이는 '전투'다. 전투에선 때때로 '반역'이 일어난다. 번역은 이 '반역'을 통해 비로소 번역이 된다. 원전은 전장의 '반역'을 통해 재창조된다. 때문에 '반역'은 원전의 내포와 외연을 깊고 넓게 한다. 번역은 오랫동안의 내공을 전제로 한다. 내공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쌓을 수 있다. 어학력과 문장력, 엉덩이와 하단전 사이의 힘의 긴장과 탄력 속에서 숙성될 수 있다. 이 공력을 온축하는 데는 장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 노력은 좀처럼 빛나지 않는다. 번역은 해당 학문의 척도가 된다. 원효학은 오직 원효 저술의 탄탄한 번역 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학계에선 아직도 원전 번역에 대해 너무 쉽게 팔호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시간에 빛을 촉발하는 '논문쓰기'에 일생을 다 소진한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을 투여하는 번역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 원효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이 100여편에 이르고 관련 논저가 700여편이 됨에도 제대로 된 원효저술의 역주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10여년 전에 역자가 펴낸 《대승기신론소·별기》 역주본과 이번에 펴낸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역주본은 원효학 연구의 도약대

라 할 만하다. 몇 차례의 '윤독'을 거친 이 역주본의 빼어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래 여러 번역본을 대조, 집성하면서 직역 중심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종래 번역본에서 빠뜨린 부분, 분명하지 않아 넘어간 부분, 잘못 풀이한 부분 등을 지적해 직역으로 풀이했다. 둘째, 경론에 인용된 경(울론)교의 전거를 찾고, 여러 판본의 교감, 자세한 주석 등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효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인용한 각종 경증(經證), 논증(論證) 등의 전거를 찾고 각 텍스트의 오탈자 내지 상이자를 바로잡고 주석을 달았다. 셋째, 아직 우리 동양고전에 일반화돼 있지 못한 표점(標點)부호까지 표기함으로써 불교고전 역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십오(육)사》 이래 시작된 한문텍스트의 표점부호 표기방식을 원용해 해당 문장을 낱날이 해체 분석함으로써 명료하게 번역했다. 넷째, 《금강삼매경》의 구조를 전관하는 도해를 부록에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분과표는 원효의 일심사상을 이해하는 지도가 된다.

아울러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역에 충실하다 보니 우리말(화를 지향하는) 역주본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학도들 공동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둘째, 종래 번역본과의 차별성을 시도하다 보니 몇몇 군데서 어색한 번역(혹은 표현)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종래 주석본들이 공통적으로 풀이한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경우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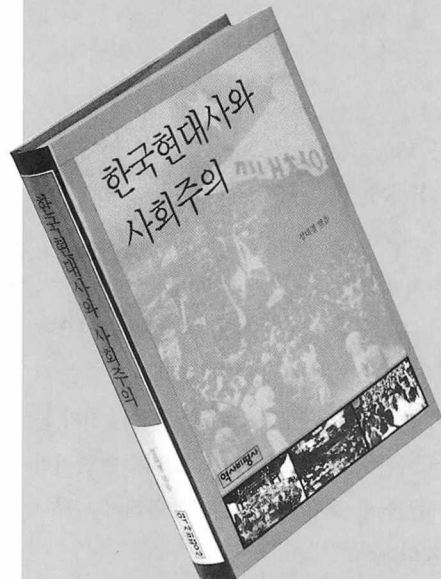
이런 몇 가지 점들에도 '선(禪)의 향기'까지 담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역주본은 주해자의 원효연구 35년의 온축이 빚어낸 기념비적인 번역작업임에 틀림없다. '동양고전의 우리말 옮김'이라는 이 땅의 동양학도들의 학문적 화두를 시의적절하게 풀어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와 '전거'로 옮겨낸 동양고전 번역의 이정표라 할 만하다.

**고영섭**

동국대 강사. 저서 《한국불학사》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 《문아(원축)대사》 《원효탐색》 외.

**20세기 말에 돌아본 한국 사회주의사  
폭넓고 개방적인 시각 돋보여**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성대경 역음  
역사비평사/A5신/462면/18,000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계에서 사회주의는 금기의 대상이었다. 어떤 의미에서건 사회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존재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반공주의 입장에서 씌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주의사 연구의 대표작으로 손꼽혀 온 김준엽과 김창순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가 1967년 출간된 이래 1986년 복간될 때까지 비매품으로 알 만한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됐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남북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 아래 가능하면 사회주의를 언급하지 않고, 언급하더라도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풍토였다.

이런 경향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1980년대라는 격변기에 '전업 역사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군의 젊은 연구자들은 주류 인문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적 보수성을 비판하는 가운데 그동안 역사의 무대 뒤에 숨겨져 있던 사회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이들의 연구에 의해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사회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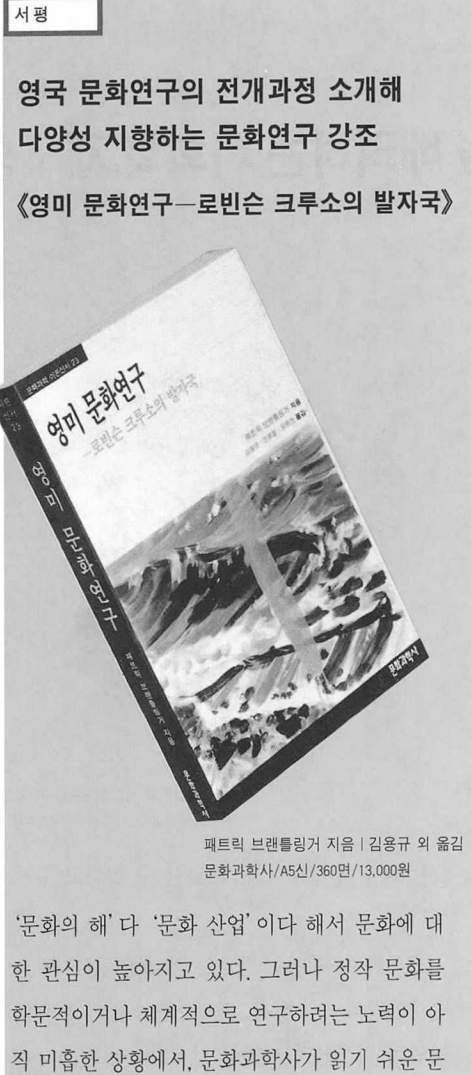
성대경이 엮은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는 위인이 밑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한 젊은 연구자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이뤄놓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세상은 변했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회주의보다는 승리한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1980년대 중반과는 다른 지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책에 글을 쓴 9명의 필자들은 역사적 현실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적 관심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위인이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주의사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이성적인 재구성을 가능하게 할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민족통일의 가능성이 점차 무르익는 상황에서 남북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 통일의 기운을 드높이는 일"(6쪽)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책에 실린 각각의 글이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고 필자들이 견지하는 시각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한 필자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한국 근현대사 속의 사회주의를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인식하는 개방적 연구 자세"며 "거시적 '통일 사관'"(257~258쪽) 일 것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는 "20대에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40대까지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20대에 시작한 사회주의사 연구를 40대에 이르도록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종의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간단히 넘겨버릴 수 있을까? 대답은 각자의 몫이다.

### 이준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저서 《농촌 사회 변동과 농민 운동》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공저)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공저) 외.



서평

## 영국 문화연구의 전개과정 소개해 다양성 지향하는 문화연구 강조

《영미 문화연구—로빈슨 크루소의 발자국》

패트릭 브랜틀링거 지음 | 김경규 외 옮김  
문화과학사/A5신/360면/13,000원

‘문화의 해’다 ‘문화 산업’이다 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화를 학문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문화과학사가 읽기 쉬운 문화연구 개론서인 패트릭 브랜틀링거의 《영미 문화연구—로빈슨 크루소의 발자국》을 번역, 출간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브랜틀링거는 빅토리아 시대 연구로 유명한 인디애나 주립대 석좌교수며, 그곳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빅토리아 시대 연구》의 편집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다. 1990년 발간될 당시 《영미 문화연구》는 미국에 처음으로 영국의 ‘문화연구’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브랜틀링거는 영국의 문화연구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1960년대의 도전적인 사회상황에서 어떻게 잉태되고 전개됐는지 살핀다. 여기서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문화연구가 국수주의적 통합의 위험성을 극복하고 저항적 다양성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문화연구의 경향이 구조주의적 주체의 구성에 치중한 알튀세르의 ‘호명’에서 문화적 저항의 가능성을 주장한 그람시의 ‘헤게모니’로 변환됨을 지적한다. 그는 특히 영국의

문화연구가 노동자 계층의 문화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찾았고, 여기에 새로운 사회적 도전이 가해져 저항의 기점으로 ‘하위 문화’나 ‘여성 문화’ 그리고 ‘타민족 문화’가 부상함을 설명한다.

레이건과 대처로 대변되는 1980년대 영미의 보수주의적 사회상황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인문학 위기’의 원인으로 도덕적 기강이 무너진 1960년대를 지적한다. 그러나 브랜틀링거는 ‘인문학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문화(그리고 교육)의 상품화에서 찾는다. 그는 문화연구의 근원이 된 1960년대가 ‘시민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학생 운동’ 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억압에 대한 민주적 저항이고 자본주의적 상품화에 대한 창의적 에너지의 폭발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는 ‘인문학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선진국인 서구의 세계 지배, 그리고 상품성을 위한 교육의 분과화로 설명한다. 그는 문화연구가 분과화된 교육으로 불가능했던 사회상황에 대한 통합적 연구고, 상업화된 교육으로 잃어버린 심미성과 도덕성을 허버마스의 ‘의사 소통적 이론’을 통해 회복하는 실질적 학문으로 사회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제의 제한성 때문에 마치 문화연구가 현대의 대중문화만을 연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연구가 국수주의를 넘어서 ‘타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타민족의 문화, 특히 서구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문명사와 문화인류학에서 다루고 있는 과거의 문화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문화연구가 진정으로 상품성과 분과성을 극복하려면 현대·서구·대중 등 문화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할 때 더욱 역동적인 문화적 교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서구 문화의 헤게모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현대 사회의 문제를 심도있게 통찰할 수 있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상기

서강대 영문과 교수. 논문 《위대한 유산》에 나타난 중산층적 직업 윤리》 《바바의 후기식민주의》 《호미 바바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외.